



무신사 유즈드
“SI 모델로
착용샷 확인하세요”
L1

metro[®]

Life

CJ올리브영
뷰티·웰니스
글로벌 플랫폼으로
L2



“묻혀있던 우리 가락 명곡으로... ‘창작국악’의 활성화 도전”



새벽을 여는 사람들

대금 연주가 임혜정 씨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을 명곡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있다. 서양음악의 역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내려오는 창작 국악을 연주해 활성화 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임혜정(32·여) 씨는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임혜정씨는 유럽,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필리핀, 태국, 대만 문화교류연주와 한국문화원 초청 연주에 다수 참여한 대금 연주가다.

대금은 부드러운 저음부터 맑고 장쾌한 고음까지 풍부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음악의 중심을 잡는 선율역할과 다채로운 멜로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임 연주는 대금에 대해 “관악기는 연주자의 호흡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악기이기 때문에 떨리는 숨결까지 표현이 된다”며 “연주자마다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가 음악의 개성이 된다”고 말했다.



1 임혜정 대금 연주가.

2 임혜정 대금 연주가 지난 7월 ‘지: 금’ 독주회를 하고 있다.

3 호주와의 협업 공연 카운터포이즈(COUNTERPOISE)에서 안무하는 모습.

◆ 묻혀 있던 가락을 다시 무대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묻자 임 연주는 주저없이 지난 7월 국립국악원에서 ‘지: 금’이란 주제의 독주회를 꼽았다. 지: 금은 ‘알 지’와 ‘대금 금’을 결합한 말로, 지금이 시대의 시선으로 대금을 바라보고,

그 소리와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20년 이후 5년만에 연 독주회다.

임 연주는 “2020년에는 창작 곡만으로 채웠지만, 올해는 달랐다”며 “민속악 장르를 공부하고 묻혀져 있는 원석같은 곡, 한 번만 연주되고 안된 곡 등을 찾아 대중과 전공생 후배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 독주회는 서용석 대금산조 가락을 45분 길이의 긴 산조와 1980년대 서용석(대금)과 강정숙(가야금)이 함께 녹음한 산조 병주를 복원·연주한 것이 핵심이다. 과거 영상 자료를 참고해 산조 합주에서 정형화되지 않았던 가락을 다시 살피고, 재구성했다.

◆ “느껴지는 연주”

임 연주의 연주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공연은 4년간 호주와 교류하며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협업)한 공연이다. 이 공연은 호주의 ‘레스트리스 댄스 시어터’와 한국의 ‘29동 댄스 시어터’의 안무, 그리고 KMP의 창작 음악이 더해졌다. 호주의 레스트리스 댄스시어터와 한국의

“

유럽·미국 등 해외 누비는 대금 연주가 창작곡 외 묻혀진 가락 재구성해 연주

4년간 호주와 교류하며 공연 협업 장애·비장애 예술인 함께 무대 꾸며 보는 음악 넘어 느끼는 연주 깨달아

해외에서 달라진 한국문화 인식 체감 국악 등 韓전통예술 확장의 기회될 것 대중과 함께 경험하는 국악 만들고파

29동 댄스시어터는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이 시대의 감각과 질문을 몸으로 탐구하는 무용단체다

임 연주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줌(Zoom)을 통해 회의했다”며 “안무를 짜면 그에 맞춰 창작곡을 더하는 식으로 준비했다.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어 통역과 한국어 통역, 수화 통역이 함께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임 연주는 2022년과 2023년의 현장공연에서 보여지는 연주보다 느껴지는 연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애들레이드 공연에 장애, 비장애 등 다양한 관객이 오셨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악기의 울림이 몸을 타고 느껴졌다’고 말해주셨다”며 “보여지는 것을 떠나서 느껴지는 연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 한국문화의 확장, 현장에서 체감

임 연주는 해외 문화교류연주와 한국문화원 초청 연주를 통해 한국문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 나갈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며 “과거에는 낯설어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질문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임 연주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학업과 언어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음악과 문화를 계기로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외국 학생들도 늘고 있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통역이 꼭 필요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 연주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국악을 포함한 한국 전통예술 전반에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는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과 이해가 형성돼 있다”며 “그 위에서 국악을 소개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느낀다”고 했다.

◆ 창작국악의 기본은 ‘전통’

임 연주는 올해의 목표와 창작음악을 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전통’이란 단어를 꺼냈다.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의 환경이 반갑지만, 그만큼 기분이 되는 전통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병행되길 바란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전통은 고수해야 할 것이고, 계승해야 할 것도 맞다. 그렇다고 곧이곧대로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다만 전통을 충분히 공부한 뒤에 창작으로 가야, 그 음악도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연주는 창작 국악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했다고 보았다. 이미 서양음악의 어법을 차용한 대중적인 창작곡은 많지만, 대금 독주 창작 음악 레퍼토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세대의 연주자들이 ‘꺼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연주는 앞으로 국악을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는 “국악도 전문가들 외에도 대중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보여지는 국악이 아니라 경험하는 국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빙속 김민선·이나현·김준호, 밀라노 향한다... 올림픽 출전권 확보
▲음바페, 올해 59호골로 ‘단일 연도 최다 득점’...호날두와 어깨 나란히 /사진 뉴시스

▲홍명보호 1승 제물 ‘남아공 출전’ 2025 네이션스컵 22일 개막
▲K리그2 이랜드, ‘인천 승격 공신’ 골키퍼 민성준 영입 임박

▲MLB닷컴, 송성문 유틸리티 능력 주목...“샌디에이고 내야진 유연해져”
▲‘애리조나 복귀’ 켈리, 트레이드되면 7억4000만원 받는다